

유럽내 日本 製造業体 現況

일본 제조업체의 유럽내 투자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 1월말 현재 유럽 18개 국가에서 활동중이거나 활동계획이 있는 일본 제조업체는 529개 업체로 나타났다.

유럽내 일본 업체의 정의로서는 일본 업체가 자본참여 등의 형태로서 유럽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로 하였으며 아직 활동을 개시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법적으로 유럽 국가내에 투자를 한 업체와 유럽국가내의 정부 당국과의 합의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업체도 포함한 것이다.

본고는 JETRO의 Current Situation of Business Operations of Japanese Manufacturing Enterprises in Europe, 제6차 보고서 (총 투자업체 529개사 중 270개 업체가 질문에 응답하여 응답율은 51%)를 요약한 것임을 밝힌다. — 편집자주 —

지난 2년간 유럽내 일본 제조업체의 총 직접 투자는 1951년 부터 1988년까지의 제조업체 유럽 총투자의 절반(US\$ 4,867)에 해당하며 이 결과 일본의 대 EC 직접투자중 제조업체의 비중은 1986년 10.6%에서 1988년 17%로 높아졌다. 일본의 해외투자 중 유럽 투자비중은 누계 개념으로 1986년 13.7%에서 1988년 16.2%로 높아졌다.

일본 제조업체의 유럽내 직접투자를 산업별로 보면 전기기계산업(Electric Machinery Industry)이 1988년 최대 투자대상 산업으로 밝혀졌으며 이후 일반기계, 화학의 순이며 1951년부터 1988년까지 누계 수치를 볼때 전자전기 기계산업(Electronics and Electric Machinery Industry)이 US\$ 1,261M을 투자하여 최대 투자분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운송장비산업(Transport Equipment Industry)가 US\$ 913M, 일반기계(General Machinery Industry)가 US\$ 626M, 화학산업이 US\$ 594M의 순이다.

1980년대말 일본의 해외 직접투자는 다음의 3가지로 특징지워진다.

- 1) 선진국 투자 급증, 2) 제조업 투자 대폭 증대, 3) 다양한 해외 직접 투자정책
- 무엇보다도 일본업체의 인수합병(Mergr & Acquisition)이 크게 증가하였다.

일본 제조업체의 최대 투자 대상국은 영국이며 분야별로는 전자전기기기로 나타났다. 국가별 투자업체 수를 보면 영국이 132개 업체, 프랑스가 95개 업체, 독일이 89개 업체, 스페인이 55개 업체, 네델란드가 34개 업체, 이탈리아가 28개 업체, 벨지움이 25개 업체, 포르투갈이 13개 업체, 오스트리아가 12개 업체, 스웨덴이 6개 업체, 스위스가 5개 업체, 그리스가 3개 업체 등으로 나타나 일본의 EC 투자가 영국, 프랑스, 독일에 집중되어 있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 영국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여 독일, 프랑스에 대한 투자를 앞선것으로 나타났다.

영국내 투자한 일본 제조업체를 업종별로 살

퍼보면 전자, 전기 및 관련 부품산업이 45개 업체로 총 영국 제조업 투자의 30%를 점하여 최대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유럽내 일본 제조업체의 전자전기 관련산업 투자수인 139개 업체의 32%에 달하는 수치이다. 전자전기기기 제조업체의 독일투자는 33개 업체이며 프랑스는 22개 업체에 달해 이 3개국 투자 업체수가 동 산업의 전 유럽 업체 투자수의 70%에 달하고 있다.

529개 제조업체들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자 전기산업이 최대로 139개, 화학이 83개, 일반 기계산업이 66개, 부품을 포함한 운송장비산업이 38개, 정밀기계 산업이 22개 업체로 나타났다.

일본 제조업체의 유럽 투자를 국가별, 산업별로 보면 국별 최대 투자업종은 아래와 같다.

음식·음료: 프랑스(15개), 화학: 프랑스, 영국(각11개), 약품: 독일(4개), 일반기계: 독일(16개), 전자·전기(부품포함): 영국(45개), 운송장비: 스페인(5개), 정밀기계: 독일(7개), 섬유·의류: 프랑스(3개),

유럽내 일본업체는 중기업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업체당 평균 고용인수는 346명(일본인 6명), 이사급 5명(대략 일본인 3명), 연간 주종 생산품 판매액은 US\$ 47.26M,

표 1. 일본 전자·전기 제조업체 유럽 국별 투자

국명	생산품	전자·전기 기기	전자·전기 부품	계
영국		25	20	45
프랑스		18	4	22
서독		19	14	33
네델란드		3	2	5
벨지움		2	3	5
룩셈부르크		-	1	1
아일랜드		6	5	11
스페인		7	2	9
이태리		6	1	7
덴마크		-	1	1
계		86	53	139

총 판매액은 US\$ 61.8M이며 업체당 보유 공장수는 1.28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투자형태를 설문에 응답한 264개 업체를 대상으로 알아볼 때 일본의 100% 투자는 51.1%, 현지 업체와의 Joint Venture는 23.9%, 현지 업체 자본 참여는 7.6%, 현지 업체 인수 합병은 15.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전기 제조업체의 경우는 타분야에 비해 비교적 100% 투자가 많으며(65.4%) 이것은 투자국들의 투자환경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EC 투자를 결정하게된 원인으로서는 국제화 전략(globalized business strategy)의 한 단계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유럽 구매자의 욕구에 맞추기 위해서”와 “현지 일본업체에 원자재나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그 다음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볼 때 자동차를 포함한 운송장비 산업은 ‘수입규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지역선정 이유로서는 ‘물리적 유통환경(physical distribution environment)을 가장 많이 고려하였으며 ‘영어를 구사하는 중간 관리자’의 고용 용이성, ‘비교적 양질의 노동자’ 고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업체를 유치하는 국가의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고용기회 증대’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공적인 설립 여부에 대해서 대상 업체의 56.6%가 성공적이라고 대답했으며 나머지는 거의 아직 판단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응답했다.

이익성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응답 업체중 전자부품업체의 60.6%가 현재 흑자를 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10.7%만이 초기단계부터 계속 흑자를 내고 있다고 응답하여 설립 초기단계에서는 흑자를 내기가 어려우나 차츰 흑자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섬유, 철강, 비철, 금속조립공업은 초기부터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수로는 200명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

는 업체들이 비교적 높은율의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년도를 볼때 1988년 이후 설립한 업체들의 사업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970~1985년 사이에 설립된 업체들이 비교적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럽의 투자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EC 투자 일본 제조업체들이 현지부품사용비율과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는 인사문제로서 주요문제는 첫째, 초과근무와 휴일 근무는 현지 고용인들이 잘 받아 들이지 않으며 둘째로는 결근율이 예상외로 높다는 점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는 이직율이 가장 문제시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부와 남부 유럽의 경우 결근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북유럽과 베네룩스에서는 3교대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결성 여부를 보면 대략 조사 응답업체의 절반 가량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유럽 및 남유럽에 있는 업체의 경우는 비교적 높은 (60~70%) 노조 결성율을 가지고 있으며 종업원 수로 볼때는 1,000명 이상이 93.3%, 300명~1,000명이 67.3%, 100~300명이 62.3%, 99명 이하가 27.4%로서 업체 규모가 클수록 노조결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투자형태로 나누어 보면 100% 일본 투자업체는 30.3%, Joint Venture는 61.4%, 자본참여는 57.9%, M&A는 73%가 노조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여 100% 일본 투자업체의 노조 결성율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업계로 부터 현지 업체로 인정받고 있는 가란 질문에 대해 응답업체의 53.4%가 긍정적인 답을 하였으며 산업별로는 전자전기 장비업체가 67.3%로 가장 현지 업체와의 관계 유지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내 일본 제조업체 경영진의 현지화(현지인 고용)와 관련, 조사응답업체의 70%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으나 41.4%가 경영층에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 하였으며 경영진의 현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활동이 제한되어 있어서 경영진의 현지화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대답이 응답자의 42%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나 전자전기 업체의 경우 능력있는 현지인을 고용하기가 어렵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현지 부품 사용비율과 관련, 전자제품 및 전기 기계산업의 현지 부품사용비율 증가율이 제조·조립 산업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을 기준할때 일본 업체의 현지부품 사용비율은 67.2%로 나타났다. 현지 부품사용비율의 증가 여부와 관련, 증대되었다는 업체는 48.4%, 증가되지 않았다는 업체는 51.6%로 나타났다. 전자·전기 업계의 경우 '증대'가 76.1%, '비증대'가 23.9%로 나타났다.

현지 부품 사용비율이 증대되었다는 업체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바 소재 및 부품의 질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유럽에 진출한 일본의 소재 부품업체로 공급원을 바꾸었다는 대답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전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대체적으로 1992년 EC통합을 앞두고 유럽 전역에 걸친 구조 재조정 결과 현지 업체의 품질보증을 포함한 관리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여지며 일본 및 EC 역외 국가의 소재, 부품 업체, 특히 전자전기 부품업체의 유럽내 투자가 증대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현지 하청업체 고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응답 업체의 52.1%가 현지 하청업체를 고용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나 현지 하청업체 고용율이 높을수록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 이유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Delivery Time, 제품의 질, 가격의 순으로 그 이유를 지적하였으며 전자, 전기업체의 경우는 제품의 질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하청업체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업체들

표 2. 유럽내 일본 제조업체의 현지 부품 사용비율

(%)

생 산 품	부품구매처	생산개시 시점 (243품목)			
		EC Countries	EFTA Countries	Japan	Other Countries
Products of Processing /Assembly Industries		43.6	1.1	52.7	2.6
Machinery and Equipment		59.2	0	39.1	1.7
Electric Machinery & Equipment		32.0	0.4	63.9	3.7
Transport Equipment		60.4	3.9	34.6	1.1
Precision Machinery & Equipment		39.4	0	60.6	0
Products of Material Producing Industries		65.6	3.0	26.9	4.5
Products of Miscellaneous Manufacturing Industries		50.0	0	47.9	2.1
TOTAL		49.8	1.4	45.9	2.9

생 산 품	부품구매처	1989년 (277품목)			
		EC Countries	EFTA Countries	Japan	Other Countries
Products of Processing /Assembly Industries		56.5	1.5	37.4	4.6
Machinery And Equipment		67.2	0.3	28.7	3.8
Electric Machinery & Equipment		49.6	0.8	44.5	5.1
Transport Equipment		64.1	4.8	26.0	5.1
Precision Machinery & Equipment		55.3	0	44.7	0
Products of Material Producing Industries		77.2	4.2	14.2	4.4
Products of Miscellaneous Manufacturing Industries		78.8	0.2	18.3	2.7
TOTAL		64.9	2.3	28.5	4.3

note) 현지 부품 사용비율은 현지 제조업체의 생산품 가격에 단순 산술 평균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다.

$$\left[\frac{\text{Value of Shipments}-\text{Value of Imports on a Customs Basis}}{\text{Value of Shipments}} \times 100 \right]$$

의 경우 향후 하청업체 고용이나 질적 개선 계획 여부에 대해서 응답업체의 78.6%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현지 진출 법인에 대한 경영권의 부여에 대해서 응답업체의 91%가 일상적인 비즈니스 활동

을 하기에 충분한 경영권이 현지 법인에게 부여가 되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합작, 100% 투자, M&A 업체들의 경우 자본참여에 비해 현지 경영권 부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여되는 경영권의 내용으로서는 현

지 노동자 고용, 현지 노동자 고용 시스템 변경, 재료 및 부품 구입, 고용자 임금결정, 생산 및 판매 프로그램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볼때 주로 생산활동과 관련된 결정권이 일반적으로 유럽내 현지 법인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본 또는 일본 합작 유럽 업체에 의해 유럽 내 Design 및 R/D Center는 금번 조사에서 73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의 18%만이 모든 R/D 활동이 일본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부 R&D 활동이 현지 법인에 할당되었으며 현지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응답이 41%(93개), 본사의 국제화 전략에 따라 디자인센터나 R/D 시설이 현지 업체내에서 구성되어 행해지고 있다는 응답이 41%(93개)였으며 R/D를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정, 인력 자원의 부족을 꼽아 여건만 되면 R/D를 행하고 있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다. 이것은 일본식 사고방식하에 행해지는 R&D 활동이 경쟁성 있는 제품개발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3개사(6.7%)에 지나지 않는점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지 R/D Center 설립 이유에 대하여 응답자의 29.6%가 '현지 생산품은 현지 소비자의 욕구에 맞게 디자인 되어야 하기 때문에'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현지 소비자의 변화하는 욕구를 적시에 맞추며 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번째는 '현지 R/D 전문가들의 사고방식을 업체의 R/D 활동에 합체시켜 Business 라인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라고 대답하였다.

현지 진출 일본 업체의 EC 통합에 따른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 1) 통관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다. 2) EC 통합이 일반적으로 사업기회를 늘릴 것이다. 3) 현재의 유동환경의 변화가 기대된다는 순으로 많았으며 주요 4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내 업체들은 상기 1) 번의 대답이 가장 많았으나 3) 유동환경의 변화가 기대된다

는 대답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이 3)은 기타 유럽 국가나 EC 역외 국가 진출업체들이 가장 기대하는 분야로 나타났다.

EC 통합에 따른 파급효과 중에서 현지 일본 제조업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내역은,

- 첫째, EC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무역정책을 취할 것이다.
- 둘째, 현존 유통(physical distribution) 패턴이 상당부분 변할 것이다.
- 셋째, EC 통합에 따른 사업기회 증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EC 통합에 따른 대응책으로서는 다음의 4가지 사항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경영진의 현지화 및 문화 사회활동의 증대 뿐 아니라 현지 부품 사용 비율의 증가를 통해 현지화 함.
- 2) 유럽내 현지 생산, 판매, 자금조달, R/D를 포함, 현지 비즈니스를 총괄할 수 있는 경영 사무소(executive office) 설립.
- 3) 일부 R/D 및 디자인 작업을 현지 전문가에 위임하고 R&D 및 디자인 센터 설립.
- 4) 현지 생산 Capa 증대.

요약하지만 상기 1)~3)까지는 생산 및 경영의 현지화를, 4)는 현지화를 통한 시장점유율 증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지법인 인원 파견에 대한 사전배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업체가 전체 응답업체의 88.4%를 차지했으며 내용으로는 어학연수가 응답업체의 40.1%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직원파견 연한은 직원의 70%가, 경영진의 60%가 3년에서 5년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진의 28.3%가 비기술직 직원의 21.6%, 기술직의 12.4%가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업체의 진출에 따른 현지 마찰의 내용으로는 '심각한 마찰이 예상되지 않는다', '경영 및 생산의 낮은 현지화율로 인한 마찰', '현지 경쟁자에 의한 반대', '일반적인 현지 거부 반응'